

8P-51

자료번호	/
제 호	



통일원관계 언론분석

국토통일원

1969. 6

국 토 통 일 원

一. 공식기자회견 이전 지상기사 현황	2
1. 1969년 2월~5월 23일 까지 취재기사 분류	2
2. 신문사별 기사 취재수	4
가. 기사분류	6
나. 사실분석	10
다. 평론(해설) 분석	15
라. 고십분류	20
二. 공식기자회견 기사분석 (1969.5.24일자)	23
1. 기사취급상황 및 공통점	23
2. 사실취급상황 및 대의	29
가. 주요신문논조 및 내용	30
나. 신문사별 기사 및 사실요지 (총평포함)	33
三. 오보 및 누설	43
四. 결 론	45
1. 분석에 대한 대책	45
가. 당원요망에 관한 반응	45
나. 신문이 요구하는 것	46
다. 오보 및 누설에 대한 대책	47
라. 홍보에 수반하는 발전계획	47

통일원 관계 언론 분석

민족의 지상과업이며 영원인 국토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노력의 결정으로 국토통일원이 발족케 되었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국민의 강인한 염원과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통일을 향한 국민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상을 표현하고 범국민적 초당적인 통일의식을 고취하여 국민의 단합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결의를 표명하여 한국통일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 국토통일원에 대하여 국민의 소리가 무엇인가를 종합하여 분석하고 집대성함으로써 앞으로 정부가 해나갈 사업에 기여코저 하는 바이다.

우선 통일원 발족을 전후하여 신문지상에 나온 기사를 공식기자회전 이전과 공식기자회전 이후인 5월말 까지로 분류하여 평가해보기로 하였다.

69년 3월 1일 발족이후 동년 5월 23일 까지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2. 신문사별 기사취재수

지상에 기사로서 취급된 전수 118회를 개별신문사별로 분류하면, 서울신문이 16회로서 가장 많으며 이는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다음이 한국일보의 15회로서 역시 많은 회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동아일보가 14회나 취급하여 일반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기관이라는 인상을 없애고 통일문제에 있어서만은 공동보조이며 단합되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경향신문 12회 중앙일보 10회로 순조로히 취급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일보 5회로서 회수가 적은 것은 눈에 띄우나 평론등에서 비교적 자세히 통일원의 연혁, 의의, 업무까지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기타 각 신문사들도 영문지를 포함하여 적절한 회수의 기사취급을 함으로써 통일원 발족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표명하였다.

(표 2. 참조)

一. 공식기자회견 이전 지상 기사현황

1. 1969년 2월~5월 23일까지 취재기사 분류

발족이래 기사취급상태는 합계 118회로서 통일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대단함을 엿볼 수 있다. 비록 80여일간 밖에 되지 못하나 사설취급이 8회에 달하고 공식기자회견 후의 11회를 합치면 무려 19회라는 높은 울을 점하고 있다.

기사에 있어서는 66회에 달하여 열면 취재를 보이고 있다. 공식기자회견후의 15회를 합치면 81회라는 고율로서 일천하고 조출하게 발족한 통일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지대한가를 알 수 있고 고십취급이 27회에 논설과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평론이 10회 기타가 7회 기자회견후 4회를 본다면 통일원은 앞날의 중책을 쌍견에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민에 호응하고 욕망을 충족시켜줄 의무감이 앞섬을 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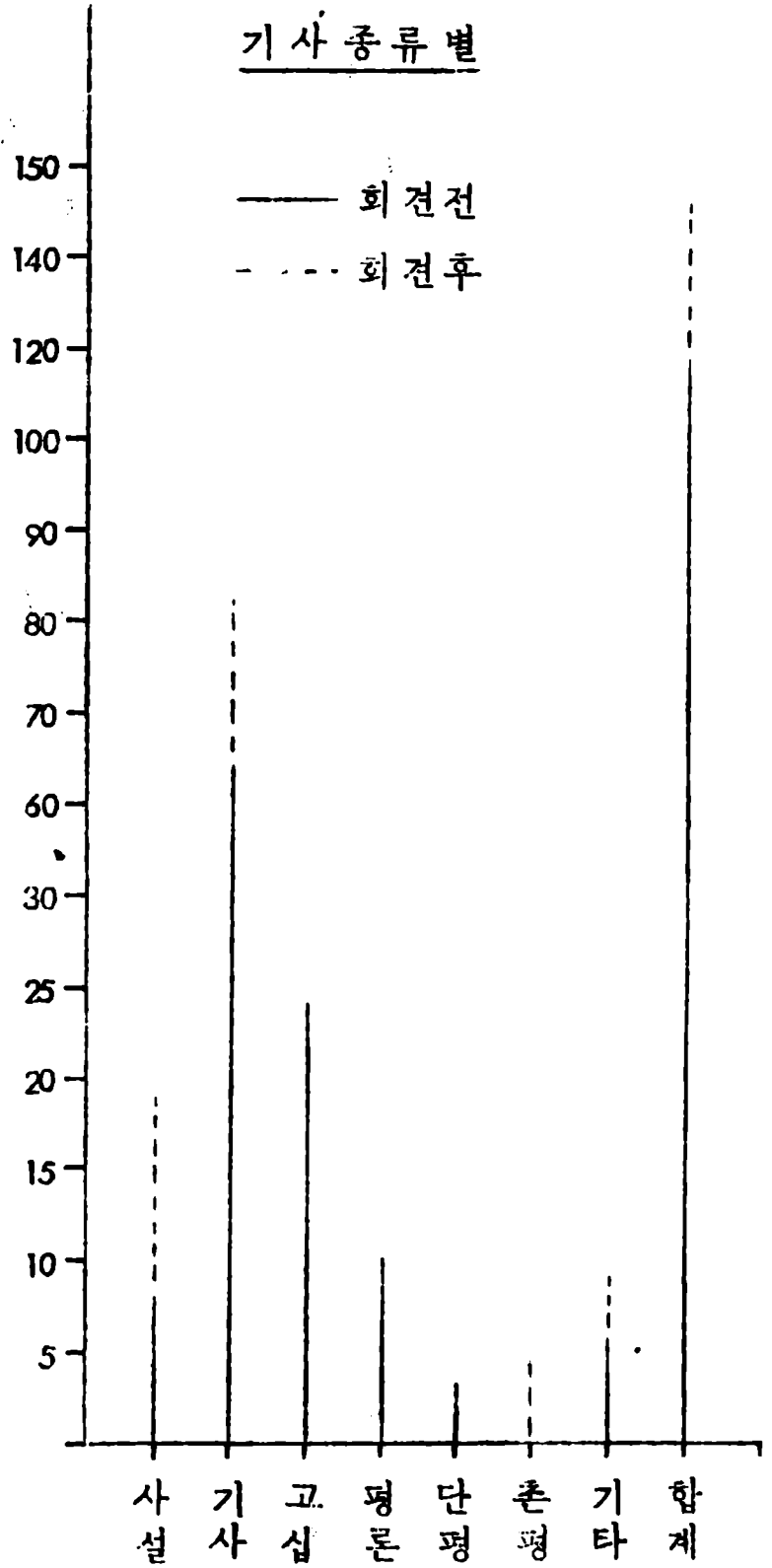
기사종류별 기사분류표 (표 1. 참조)

[표 1]

공식기자회전 이전 지상기사현황

1. 1969년 2월~5월 23일까지 취재기사 분류

기사 종류	회전전 전수	회전후 전수	계
사 설	8	11	19
기 사	66	15	81
고 실	27		27
평 론 (해 실)	10		10
단 평	2		2
촌 평		3	3
기 타 (인터뷰 대통령연설 구절등 주간여성)	5	1	6
합 계	118	30	148



※ 기사 종류별 기사분류표

2. 신문사별 기사취재수

지상에 기사로서 취급된 건수 118회를 개별신문사별로 분류하면, 서울신문이 16회로서 가장 많으며 이는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다음이 한국일보의 15회로서 역시 많은 회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동아일보가 14회나 취급하여 일반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기관이라는 인상을 없애고 통일문제에 있어서만은 공동보조이며 단합되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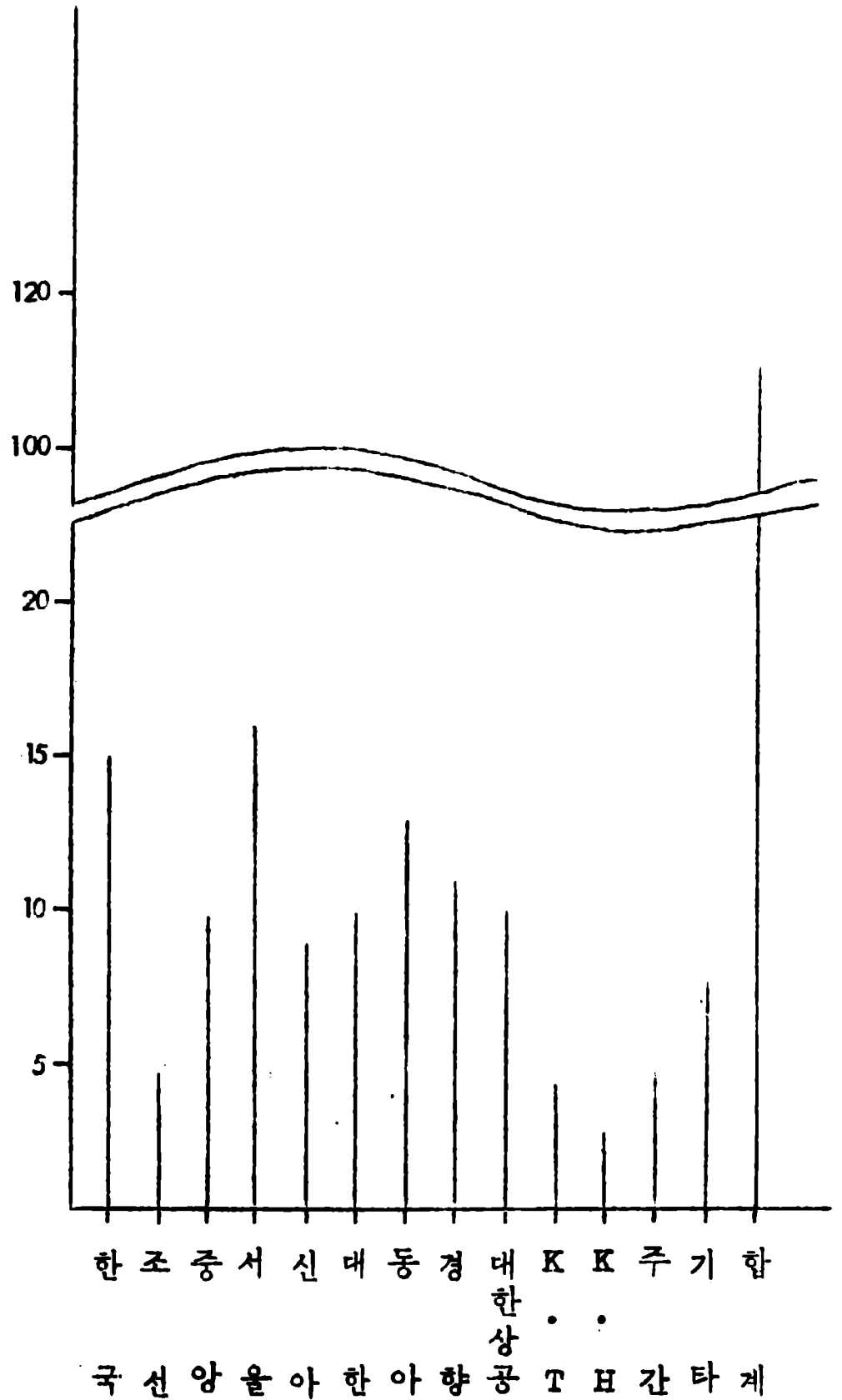
경향신문 12회 중앙일보 10회로 순조로히 취급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일보 5회로서 회수가 적은 것은 눈에 띄우나 평론등에서 비교적 자세히 통일원의 연혁, 의의, 업무까지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기타 각 신문사들도 영문지를 포함하여 적절한 회수의 기사취급을 함으로써 통일원 발족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표명하였다.

(표 2. 참조)

[표 2] 신문사별 기사취재수

신문사	취재수
한국	15
조선	5
중앙	10
서울	16
신아	8
대한	9
동아	14
경향	12
대한상공	11
K . T	4
K . H	2
주간	5
기타	7
계	118



취재수를 다시 분류하여 순기사로서 취급된 것과 사설 및 평론 그리고 고십으로 대별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가. 기사분류

대체로 초기의 기사취급 경향은 통일원 발족에 대한 기사가 제일 많으며 이에 장관의 경력을 소개한 것이 대부분이다. 전반적으로 발족자체를 정확히 보도하고 그 임무와 기능에 대하여 산발적이거나 합당하게 다루었다.

장관임명에 대한 하마평은 학자라는데에 호감을 표시하고 경제통이 발탁의 원인이라고도 하고 정치적 투명인사나 책벌레등 애칭도 볼 수 있다.

차관에 대하여는 군출신이고 3성장군임과 행정가적 입장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통일원 장·차관인사에는 과거의 정치적 거불급 하마평 보다 더욱 실질적이고 보람있고 신중하고 실속있는 인사라는 평을 엿볼 수 있다.

이와같은 기사회수가 무려 지상을 40여회나 장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위원 자문위원 구성하는데 대하여 12회로 많은 취급을 하여 역시 언론계나 국민이 이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들 기구의 앞으로의 활약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지혜집중을 바라고 국민여론통합과 연구의 체계화를 이와같은 연구 자문기관에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통일원업무중 해외과건기사가 8회나 나왔는 바 이는 통일업무 일원화라는 중요임무기사가 4회만 취급된데 비하여 과대

보도된 감 없지 않다.

산재되어 있는 업무의 단일화문제에 대하여 4회 기사취급은 그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사실에서도 3회나 언급한데 비하여 적게 취급한 감 없지 않다.

기타 기사는 교육과정, 국회에 상임위원회, 국무총리 초도순시 등으로 되어 있다.

1) 요망사항과 기대

기사중 정부에 요망하고 기대하는 사항을 관찰하여 본다.

「분산논의된 통일문제를 집대성」하고 「일원화」하는 데에 역점이 있고 통일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요청과 「관료성 배제하라」 그리고 「직원의 신분보장을 하라」는 요청이 다음 순위로 역점을 두고 있다.

기타 다수의 요청이 있는 바 그중 중요하다고 사려되는 것만 몇가지 논급하고자 한다.

정부내 각 기관이 통일원에 협조를 잘 할 것인가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또 고차적 통일론을 펼 것을 요청하고 초당적 범국민적이라는데 이의가 있다.

그리고 북괴의 동태파악이 시급함을 말하고 통일에 관한 직접적인 홍보선전 계몽을 요망하고 있다.

요망사항과 기대 (표4 참조)

신문사별 기사건수 (표4 참조)

[표 3]

기 사 분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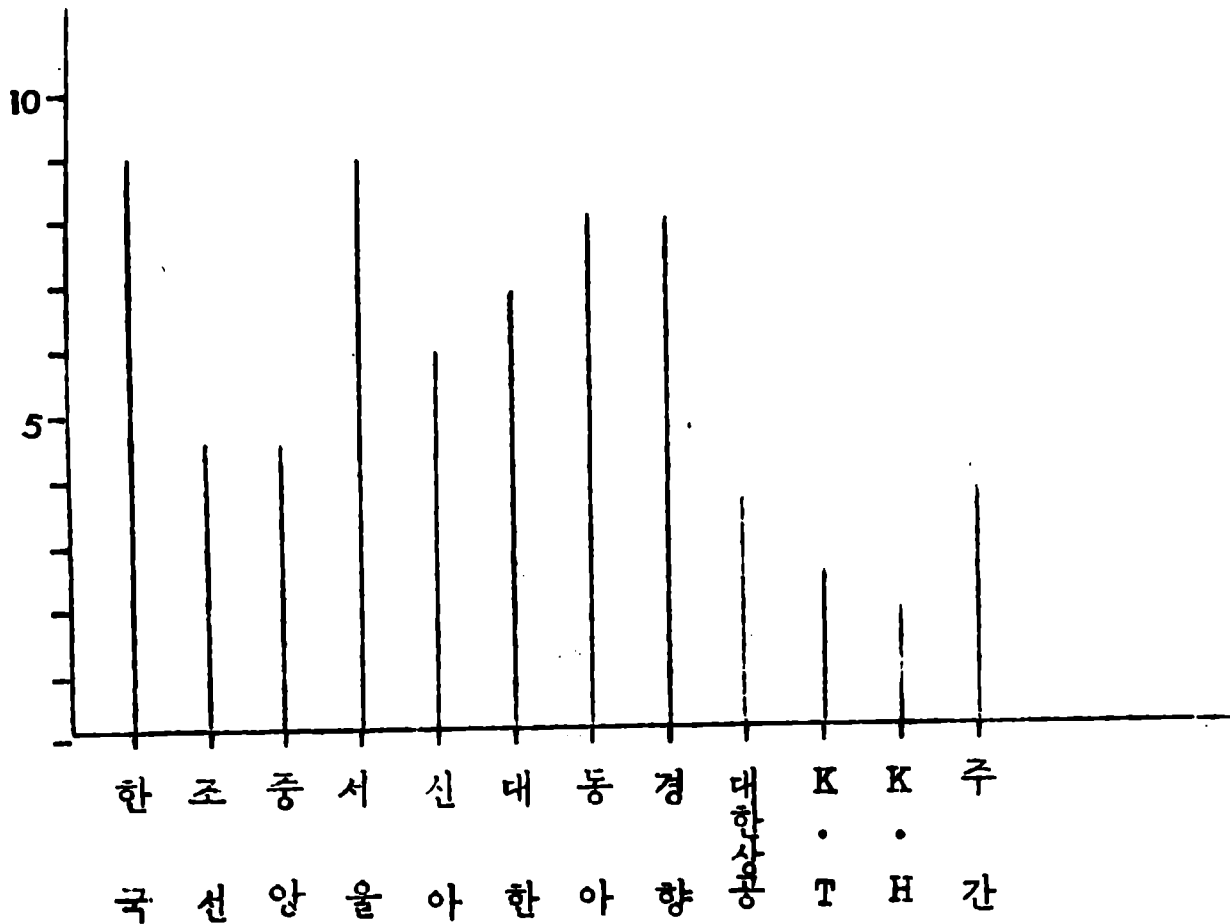
통일원발족 및 인선 장관 : 책벌레 정치적투명인사 학자 차관 : 행정가, 삼성장군	40
자문위원회	12
해외파견	6
단체단일화	4
기 타. 교육과정, 국회분위, 초도순시	5

1.) 요망사항과 기대

집행기관으로 육성	
통일에의 초석	
분산논의 집대성하라 (일원화)	3
운영의 묘 살리라	2
타기관과 협조하라	
과학적 정책입안	
관료성 배제	2
국민 이해 증진	
민족의 숙원 (至上), 높은 차원에서	

새로운 방향	
초당적, 범국민적 기구로	
첫 과제는 북괴동태 분석	
증추적 역할을	
종사원 신분보장	2
직접홍보도 관장	

[표 4] 신문사별 기사건수



나. 사실분석

공식기자회견 이전까지 지상에 나온 사실은 「한국」 「서울」 그리고 「신아」가 독립된 제하에 통일원관계 사실을 썼고 대한은 일반적인 사실중 일부를 가지고 발족을 말하였다.

기자회견시까지 언론기관은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사실취급 회수로 알 수 있다.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요지를 보면 통일원의 인적구성이 일할 수 있게 짜여지지 못했으며 예산도 과소하게 책정되었다 하였다.

그리고 통일문제가 각종각색의 운동방법 논의방법 실천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양화속의 일원화라는 방향으로 개방된 민주적 방식을 내세우면서 일원화해 줄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통일문제는 민족적 대과업이므로 소홀히 망각의 세계도 타부시 해서 안되고 대과업인 고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상 세가지는 언급빈도가 각각 3회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자주적 통일의식을 가지도록 역설하여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발언강화하여 남의 결정에 의한 분단된 비극을 만회코저 하는 정신자세를 엿볼 수 있다.

그러면서 국제적 교류를 환영하고 U N과의 관계를 밀접히 가질 것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같은 두개문제 언급이 2회에 달하였다.

그 외에 정부각부처가 신설된 통일원에 대하여 협조를 잘 해줄 것을 바랐으며 업무의 일원화, 종합, 집대성이 기존기관과 마찰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심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리고 민간에 산재되어 있는 기관간의 협동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북괴의 가장된 평화통일을 신중히 경고하며 국민계몽을 위해 정기간행물등도 취급하라는 요청이 있다. (표 5 참조)

[표 5] 사 설 분 석

한 국 일 보	3 회
서 울 신 문	2 회
신 아 일 보	2 회
대 한 일 보	1 회

<요 지>

내 용	강화회수
우리 스스로 좌표를	2
인적구성, 예산부족	3
협 조	1
다양속의 일원화	3
민족적 대과업	3
북괴의 가장된 「평화통일」 경고	1
정기간행물 발간	1
국제교류 U. N	2

2) 신문사별 사설요지

각 신문사별 사설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각 사별로 분석 해설은 생략하기로 한다.

신 문 사 별 요 지
(사 설)

한국일보

날 자	제 목	내 용
'69.2.18	조용한 행정보강	농림 건설의 활력 통일원 발족이 특징
'69.3.1	국토통일원의 출범 - 민족숙원 위한 지혜 집중의 광장돼야 -	통일의욕을 상징 인적구성, 예산이 불충족 관료형식, 보직, 대기처를 자제 인재를 거시적 어프로취 감상적 통일론을 착실한 바탕으로 주체적 통일조건 국제정세
'69.5.7	통일원으로 통일하라 - 지혜집중한 자문, 연구개발촉진단계 -	즉흥적이 아닐 것이다 권위에 도사리는 공연가는 불 량이다 일원화와 운동의 재조직 「다양속의 일원화」 주목 초당적으로 자신을 입증 분발기대

신아일보

날 자	제 목	내 용
'69.2.15	일부개각은 고무적 -	신장관 기용은 이색적이다
'69.2.19	통일원에 기대한다 -	민족적대과업, 매늦은 감도 유함 각부처의 협조 및 예산의 뒷 받침이 적극 강구 요함. 3실1과로 45명으로 너무 중책 벽찬 감격

서울신문

'69.3.1	통일원 발족에 기대한다 -	민족의 숙원, 우리 문제를 능동적으로 다룰 힘을 갖춤. 과거, 거의 이상에만— 현실성 없는 「북괴의 가장된 평화통일」에 장단 국내는 타부, 국외는 활발 우리 스스로 하자
'69.4.4	국토통일 원의 좌표 - 통일방안의 기본운영 방안 -	각 연구를 집대성 반공단체에 대한 관찰권 단일 화, 간행물 정기적으로, 국제 적 분단국가간 교류

날 자	제 목	내 용
		<p>통활한다는 것은 현명하다. 한걸음 더 나가 산발적인 통일문제까지 이양 받아야 한다. 신생국 속출, UN의 변질도 유리하냐, 한국의 좌표를 찾자. 사제전문가, 국제적교류는 정당함. 인사에 결함 있으면 안됨. 현재 (4/4일)까지는 적재적소원칙과는 거리가 있는듯함.</p>

대한일보

'69.3.10	사설중 일부	<p>근일 남북통일의 전담기관이 나옴. 무심치 말고 부단히 생각하자.</p>
----------	--------	--

다. 평론 (해설) 분석

통일원발족을 계기로 지상에 정식 논평식 또는 기사형식 평론을 종합한 바 평론의 강조점을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일업무의 일원화 및 집대성한다는 사항을 11회 언급하여 통일업무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순기사취급시에는 3회 정도였으나 해설에 있어서는 11회나 되어 역시 언론의 정확한 방향감각을 느끼게 한다.

타기관의 협조문제를 기사에서 유의하였고 사설에서도 논급하였으며 평론에 있어서는 5회나 언급하였다. 그 표현방법은 「타기관 협조」도 「통일원장관과 관계장관 협조」로서 표하고 이는 외무부 문공부, 문교부, 국방부, 중앙정보부, 안보회의등을 뜻하고 더 가서는 반공연맹과 같은 민간기구도 뜻하는 바 있다.

유일한 통일관계업무의 행정기구도 확대 되어야 겠다는 표현으로 결론지우고 있다.

평론에서는 기사와 같이 인사문제를 5회나 언급하여 아무리 훌륭한 기구라도 인사가 맹점이면 소용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흥미있는 것은 직원의 신분보장문제를 4회나 취급하여 특이한 관심을 표하였다. 기사중에 「일기당첨하는 인재」가 모인다 하였으나 현직제상 안정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보안문제와 기밀을 다루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장도 아울러

고찰하고 있다.

기타 사명감을 가진 통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타현정부부처보다 정신적 중요성을 말하고 지성을 가지고 임한다는 뜻이다.

통일문제는 묘목을 심는 것과 같다하여 열매맺을 것을 기대하여 가꾸는 자세를 말하고 대통령각하의 유시를 재표현한 것이 있다.

홍보에 있어 국민계몽 타부시된 논의의 선도를 거론하여 통일정치문제의 선전적 효과를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선건설 후통일적인 표현도 있어 정치적 힘의 배양, 경제건설도 국력의 신장 군사력증강문제에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 이는 통일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막연한 감상적 즉흥적 논의를 벗어난 지성에 입각한 신중한 일면을 언론이 보여주는 것이다.

관료적 폐풍에 대한 우려를 서슴치 않고 표현하여 모처럼 신설된 정부부처인 통일원이 관료적 타성에 휘말리어 낭비와 기능발휘에 지장을 줄까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2) 다음은 평론내용을 가지고 고찰하기로 한다.

대체적으로 통일원이 연구를 하는 기구니 여러가지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과학적 입안을 할 것을 당부하여 창의와 지성 국민이해증진을 말한다.

국민여론통합의 필요성도 잊지 않으며 정치홍보부문에 역점을 둘 것도 지적하여 서독의 전독문제성의 정치선전국적인 활동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인원으로 대부분이니 10 배로 늘리라고 요구하며 45 명이 4천만의 염원을 풀기는 힘들 것이라 하고 어떤 평론은 경제기획원적인 정치상부조직이 되라고까지 하였다.

통일노력의 구심점이 되고 집약체가 되어 통일업무를 일원화하여 통일에의 좌표를 요망 관민이 다 같이 통일원에 협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에의 의지를 사명감과 정열로 학구적으로 힘모아 구현하자는 것이다.

평론의 주요내용은 다음 난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6. 참조)

[표 6.] 평론 (해설) 분석

1) 대의별

내 용	회 수
일원화, 집대성	11
타기관 협조 염려	5
인사에 언급	5
사명감, 지성, 타부 묘목, 홍보 (정치) 선건설 후통일 관료성 배제 등 기타	각 1회 이상
신분보장	4

2) 주요내용

주 제	내 용	건 수
인 물 평	이력, 저서, 프로필	2 건
과학적 정책 입안하라 관료성배제 창의, 지성 모으라 국민이해증진 따라야.	사명감있는 인사 충용 타기관협조 신분보장	
통일원의 발족과 전망 국민여론 통합 필요 연구기구로 애로 많다.	유일한 행정기구로 확대 인사, CIA, 안보, 반공련에서도 통일원장관과 관계장관 협조 신분보장 모목 키우는 인내심 현재인원 10배로 정치 홍보부분을, 경기원같이 상부 조직이 서라	
통일업무의 구심점 초당적중지, 집약체되라 통일정책 기본운영방안 마련 통일예의 좌표 } 집대성 } 단체일원화 }	일원화 기본조사 체계확립 분단국 실정파악	

주 제	내 용	진수
<p>명명한 「통일논의」 남북협상 → 북진통일 → 남북총선거론 까지</p>	<p>선건설, 후통일 「정치, 경제, 군사적 실력을」 대통령 광주발언 국회에서 논의 문공부가 원안수정 거물급원장 물색 출발은 허술하나 끝내 허술 할 수는 없다. 45명이 4천만의 염원을</p>	
<p>통일에의 의지</p>	<p>감정적 통일론 탈피 타부시도 탈피 타부처의 협조 「이니시아티부」를 잡는 구심점</p>	
<p>분산작업 체계화 범국민적 키운 제자의 덕 불 때도 왔 다</p>	<p>다소감정적, 즉흥적이었음. 학계, 언론계, 종교계의 지체 총동원 청년이 돈만가지고 하나 사명감, 학구적 정열로</p>	
<p>통일원의 출범 연구, 분석 임무크나, 2차행정기관</p>	<p>피상적 문제를 획일적으로 집대성, 일원화 각계조언, 부처협조, 신분보장, 전문가확보 정보취재의 심도허용문제</p>	
<p>거래의 숙원</p>	<p>업무일원화 명실상부하다 70년대 후반을 향한 신호 다.</p>	

라. 고심 분류

공식기자회견이전에 통일원관계 고심란은 27 회정도가 취급되었다. 그 대의를 취급빈도에 따라 요약할 하면

- ① 예산부족 장비부족이 제일 많이 동조를 취하였다. 다음이
- ② 통일원의 사업방향을 말한 바 민간기관과는 여하히 협조하며 반공단체 일원화는 여하히 하며 대통령의 격려에 고무가 됐다 등이다. 그리고
- ③ 개원기사와 인사취급에 만족을 나타냈고 조금의 불만은 엿보였다.
- ④ 구주공관장과의 간담회와 아주공관장과의 간담회등도 고심으로 설명취재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미니부처에서 대통령격려에 고무되었다. 신장관이 유당수계 인사방문했더니 민간기구로서의 통일원을 요망한다, 타부와의 마찰을 피하자, 지금은 기초작업기간이다. 담당관 인선이 엄격하다. 고로 늦다, 민간 촌로까지도 통일방안을 들고 통일원에 찾아든다, 격무에 코피소동이 난다, 보도진과 승강이로 통제구역 설치, 도시락 일색인 통일원, 차박사 연구비지급없어 사표소동 등으로 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통일원업무에 동조적이고 꼬집은 사례는 거의 볼 수 없었다.

(표 7. 참조)

1) 대 의

27 개의 요약 (언급 빈도순)

- ① 예산부족, 장비부족
- ② 사업방향
- ③ 개원, 인사평
- ④ 구·아공관장회의

2) 고십 내용

고 십	내 용
대통령, 격려고무 구주공관장 회의 반공단체 일원화 교과과정 신장관, 유당수 인사 정부각부처, 민간연구기구와의 협조방안 동남아공관장 회의 신장관 선임평 금월은 기초작업 기간이다	미니부처에서의 신장관 국무회의에서 해명 유당수는 민간기구로서의 통일원을 요망, 협조요청 매사 조심한다 정치인 보다는 학자 사명감 철저한 자로 인사를 타부처와의 마찰 피하자

O P X

3 단계 업무에 연구부족

신장관 연구장관

통일에 별별 해피안

통일원 손 모자란다.

장비부족으로 우울

초조한 빛

격무에 코피소동

보도진과 승강이

도시락 일색

총리 방문 늦어 김한숨

사표소동

담당관 인선이 엄격
고로 늦다.

신장관 제일 늦다.

(서울)

Painting 도 있다.

발령이 늦다.

통제구역

차 박사

二. 공식기자회견 기사분석

지난 5월 24일 장관취임후 첫번째 공식기자회견을 가진 바 그 후 수일간 지상에는 기사와 사실이 게재되었다.

기사는 대서특필이었으며 내용의 정확성은 대체로 양호하였다. 사실도 적극적으로 취급 통일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표하였다.

1. 기사취급상황 및 공통점

중앙에 있는 주요일간지 (영문포함) 에 전부 기재되었다.

10개 기사중 5개는 톱으로 취급되었으며 나머지 5개도 준톱으로 취급되었다.

지방지를 샘플로 해본 결과 3개지에 전부 톱으로 취급되어 있다.

이와같은 것을 볼 때 시기적 문제도 있겠지만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기사보다 초연한 이념적인 사건으로 거족적으로 거론됨을 알 수 있다.

기사는 대서특필이고 대체로 정확하였다. 그 기사내용을 간략하게 분석하여 보면은 다음과 같다.

통일문제를 탄력성과 신축성있게 다루겠다는 내용에 대해 헤드라인이 8회나 되어 특별한 관심과 언론계의 적은 흥분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은 자유스런 통일문제의 논의라는 제목이 7회에, 헤드라인

이 2회나 된 것과 같이 하여 지금까지 타부 시되어 온 통일문제 논의와 굳어져 있고 판에 박은 듯한 통일문제에 새로운 입김과 적정으로 통일을 모색코저 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대 환영하는 것으로 사려될 수 있다.

언론이 흥분한 나머지 통일원자체가 신중히 내놓은 자유민주적인 원칙과 원리는 변할 수 없고 자유스런 논의와 연구는 통일원 내부에서만 허용하고 장차 적당한 시기에 여론을 선도하고 집대성하겠다는 구절은 대부분 소홀이 다루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통일원의 발족은 크게 알려지고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여기에 있음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다음 헤드라인이 1회로서 기사가 5회나 기재된 9월 여론조사를 볼 수 있는 바 이것은 과연 어떠한 통일에 관한 여론이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무엇인가 하고 언론계가 흥미와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통일자문위원 명단을 처음 공개하였는 바 기록회수가 8회나 되고 전원의 명단이 지상에 기재되었다.

원로급인사들로 구성되고 여·야 할 것 없이 구성된 위원회에 별다른 논평이나 기사는 취급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구성되어야겠다는 동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민간협의기구에 대하여 5회나 기사취급되었다. 장관이 전독문제성의 독일통일촉진협의회라는 민간협의기구의 설명을 한 바 이것이 변천되어 한국에서도 이런 형태의 민간협의기구가 있어야

겠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통일업무의 일원화와 연구체계의 일원화도 산재될 수 없다는 뜻으로 3회나 취급되었으며 국회내에 통일위원회가 있어야겠다는 형식이 3회가 나타났다. 이것도 독일에는 통일촉진위원회가 국회내에 있다는 것을 설명함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며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외에 조사단과전 세미나 참석등으로 2회만 기사취급되어 이것은 공식기자회견 이전에 8회나 과대취급된데 대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역시 통일업무 전체비중에 비해 적절한 기사취급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회견내용을 각양각색으로 기술하였으나 대체로 이상과 같이 종합 집약할 수 있다고 본다. (표 8. 참조)

[표 8] 공식기자회견 기사분석

1. 기사취급상황 및 공통점

주요 일간지	10개 기사	톱 5	준톱 5	
경제지	2개	0	1 (4단)	1단
경북지방지	3개	3	0	

① 기사는 성공적 대서특필

② 대체로 정확함

순위	공 통 점	기록회수	TOP 기록
1	탄력성 (신축성)	10	8
2	자문위 명단	8	
3	자 유	7	2
4	9월 여론조사	5	1
5	민간협의기구	5	
6	업무일원화 (연구)	3	
7	국회내 위원회	3	
8	조사단	2	

2. 사실취급상황 및 대의

신문사종류	기사종류	기사회수	비 고
주요일간지	사 실	8개	동아, 대한 제외
" "	평 란	1	동아, 횡설수설
지방지 (경북)	사 실	3	기타지역은 미수록

- ① 통일원의 업무착상을 대환영
- ② 탄력성과 자유보장에 특별관심
—연구에 대한 관심—
- ③ 홍보, 선전, 국민계몽, 철저히 기대
- ④ 현예산, 인원은 불만
- ⑤ 각 부처는 협조하라

가. 주요신문 논조 및 내용

주요점	내용
토론의 자유 연구의 자유	무책임, 산발, 기분적 발언은 금물, 소홀히 말라 위법성조각은 당연 자유 이룩하자 타부시를 양성화 자유보장 노력하자
국제적 관심 일게	범세계속에 공명을 세미나등 양호한 착상
통일촉진협의체	국민 에너르기 집결 각계협력 종합 직능단체, 정당, 민주세력 동맹으로, 통합조정하라
예산, 인력 뒷받침하라	3,000, 45명은 너무적다. 제1의인 고로 시정하라 유명무실하게 말라 너무도 소규모다 근시안적 과를 범하지 말라.
국회에도	상임위를

독일의 통일 준비등	선망의 대상이다
연구	대공심리전과 병행하자 평화공존사상경계 진실을 안다. 분석, 전망 3단계연구, 분단국가 실태도 관료뿐만이 아닌 민간참여도
국민 계몽이다	노선 PR하라 선전, 여론조사도 향도하라, 연구한 것을 홍보하라
정부의 적극자세 환영	그러면서 신중하다. 첫 포부, 최고염원이다 진 1 보다
탄력성	실정맞는 정책 기본통한원칙 불변이어야 함 토착인구비례 수정불가 승공통일 원칙이 아닌 절차문제이어야 한다
각 부처는 협조하라	
민족주의가 공산체제 보다의 우수성을 제시하자	

2. 사실 취급사항 및 대의

중앙에 있는 주요일간지 대부분이 사실로서 통일문제를 다루었다. 동아일보와 대한일보를 제외한 8개지 (영문포함) 가 사실로서 이를 게재하였고 동아는 「횡설수설」란에서 통일원을 다루었다.

지방지를 샘플로 3개사만 본바 이것 역시 전부 사실로서 통일문제를 게재하였다.

이와같이 공식기자회견을 기사로나 사실로서 대대적으로 취급 통일원의 앞날에 지대한 관심을 표현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통일방안은 현실적으로 제안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의 요지를 종합하여 논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통일원의 사업착상을 대환영하였다. 이것은 통일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여하히 언제 실행하느냐 하는 막연한 사실인고로 아무도 구체적 사실과 방법을 내놓고 이와같이 행하라고 요구할 수없게 되어 있다. 여기에 각종 시책방안을 제시한 것이 일반의 공명을 받는 것이라고 사료된 것이다.

둘째로 통일정책에 탄력성을 둔다는 것과 자유보장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사실이 표현하여 기사때와 꼭 같은 방향을 보였다. 그러나 기사취급보다 실내용을 분석해놓고 원리원칙에 어그나지 않는 데에 동감을 표하였다. 그러나 한두개 사실은 기사와 동양 취급하다가 탄력성이 위험하지 않나하고 기우도 표시한바 있다.

세째로 홍보, 선전을 철저히 요구하고 있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계몽을 갈망하여 타부시 되었고 자칫하면 失手를 저질렀던 과

거방식에서나마 논의의 한 계점을 내놓기를 요청하고 있다.

네째로 통일원의 현예산이 너무적다는 것과 인원구성도 있을 수 있는 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자회견 이전에도 사실이 주장한 바 재론 재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언론이나 국민이 이와 같이 생각할 뿐 아니라 관계부처도 부정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끝으로 협조문제인데 통일문제에 관계된 부처는 신생 통일원에 적극 협조하여 줄것을 아쉬워 하고 있다.

가. 주요신문논조 및 내용

이상과 같이 종합검토한 것을 다음은 각 논조를 고찰해 본다.

토론의 자유, 연구의 자유, 탄력성문제는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무책임하고 산발적 발언은 하지말자하여 신중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있어 통일원내부에서 백방의 연구는 당연히 위법성 조각원인이며 대공심리전과 병행하여 연구하고 진실을 알고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라고 하였다. 자유보장노력을 하되 평화공존사상을 경제 기본통한 원칙은 불변이어야 하고 원칙아닌 절차가 다소 자유로히 변동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민 계몽에 있어서 통일로선을 적절히 P.R하고 여론조사등도 실시하되 여론을 향도하라 하였으며 이질 과거 제멋대로 날뛰던 즉흥적 통일안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일원에서 연구한 것을 적당히 선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국민단 계 동할께 아니라 세계속으로 뛰어들어 국제적 공명도 얻고 세미나등은 양호한 착상이라는 것이다.

이런점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환영하였고 진일보하였다고 평한다.

예산, 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겠다고 역설하고 3,000 분지 1의 예산과 단 45명의 인원으로 여하여 일하겠느냐하고 국토통일이란 국가의 제 1의적 사업인고로 즉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리고 관료적 타성으로 통일업무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유명무실한 소규모기관으로 하지 말기를 요구하며 이것은 백년대계없는 근시안적 화를 범한다는 것이다. 사실 통일원의 예산이나 기구 45명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보잘 것 없는 출범인 것이다. 그러나 종내는 보잘것 없을 수 없고 최고의 염원임으로 명실상부하게 처리하라하여 실망을 표시하였다.

통일촉진협의체의 구상도 동조하여 국민 에너지를 집결하고 각계협력을 종합하여 정당, 사회단체, 직능단체 종교단체 할것 없이 민주세력의 동맹체로 발전시켜 통합조정하라 하였다. 현인원 예산 등으로는 사실 이 방대한 사업을 착수하기엔 벅참을 금할 수 없다.

그러면서 독일 같은 국가의 통일노력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았다.

산재하여 취급하고 있는 통일노력을 집결하기를 원하며 관계각부처의 협력을 요청하고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있어서도 통일상임위원회를 두어야겠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것은 국민의 의사

를 대변하는 의회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 없다는 아쉬움도 표현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해정부에 국토통일 원의 제 1 보를 찬양하고 민간에 통일 촉진 협의회를 역설하고 의회에 통일 촉진 상임위원회가 있어야 삼의 일체적인 통일노력을 경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체제 보담 민족주의가 우수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공식기자회견에 대한 기사와 사설을 설명하여 보았다.

다음은 각 신문별 사설과 기사 취급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촌평까지도 기입하여 보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해설과 분석도 흥미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였다.

나. 신문사별기사 및 사실요지 (큰명포함)

경향신문

날 자	종 류	내 용	취급도
'69.5.24	톱	9월에 통일론 여론조사, 자문위 논의도, 법제약 안받게 보호, 민간협의기구도 찬성, 신축성, 자문위 명단.	7 단
'69.5.26	사 설	<p>통일방안의 모색</p> <p>—적극성과 신중성을 아울러 당부—</p> <p>정부의 적극자세 확립 또 신중하라.</p> <p>주목할 것은 탄력성문제다. 공연히 이상한 논의안 나오도록 여·야 막론한 자문위원, 연구위원도 법제약받지 않도록 정책연구와 토론의 자유를 절대 보장해야 발족일 천이나 통일 원구상도 많다. 워싱턴세미나가 일조되길 그러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론조성 금물. 조심성 있는 계획세우자.</p> <p>국민여론조사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 민의창달? 국가영도에 편하나 신중하라</p> <p>통일운동체 구상</p> <p>각직능단체, 여·야정당,</p> <p>범국민적민주세력 동맹체를</p> <p>.....</p>	

동 아 일 보

날 자	종 류	내 용	취급도
'69.5.24	준 료	통한개념에 탄력성고려 자문위원명단, 공약수룩, 연구의 자유보장, 업무일원화, 연구체제 확립, 삼위-체로,	7 단
'69.5.27	「획 설수 설」	국토통일연구원 기능발휘 국제정세변동등 실점맞는 통일정책 워싱턴에서 10월쯤 세미나 훌륭한 착 상이다. 독일의 통일준비는 부럽다. 우리도 평소의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 요하다. -은 연구, 또-은 국민제몽 이다. 달콤한일, 거슬리는일 그대로 분석 전망하라, 진실을 안다는 것이 중요. 연구만 하지 • 말고 국민제몽하고 국제 여론을 환기하는 선전도 요함.	
'69.5.26	만 화	진맥, 24년을 앓아온 고질 허리병 이다.	

서울신문

날 자	종 류	내 용	취급도
'69.5.24	톱	통일방안 신축성있게. 범국민적 체제확립 자문위원명단 삼위-체운동 조사단과전 및 국민여론조사 업무일원화, 연구체제 운동체제	10단
'69.5.28	사 설	국토통일원의 기본임무 비교적 조신성있게 소신피력했다. 터부시를 양성화, 어떠한 사상도 받아 들인다. 토착인구비례도 그 수정이 불 가피할 수 있다 한바 통한정책상 중 요한 변화다.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자. 기본통한 원칙 불변이어야 한다. 승공통일 (소위 적화통일 70년대를 명심) 이다. 관계부처는 협조하라. 예산과 인력면에서 뒷받침하라.	

날 자	종 류	내 용	취 급 도
'69.5.24	특	통일개념에 탄력성 통일연구에 자유보장 자문위 구성, (명단) 분단국가에 자료조사단 파견 여론조사등 통해 국론통일	8 단
'69.5.26	사 설	통일원의 첫 포부 최고염원이므로 주목한다 진부한 개념을 지양한 진취적 계획, 범세계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 공명조성, 탄력성 시사 민족주의가 공산주의보다 강하다를 집약하라, 여론조사는 통일자세 확립 및 향도적 구실을, 45명과 3,000 ¹ 의 예산은 기우를 금할 수 없다. 제 1의인 고로 시정되어야 할 범국 민적인 긴급동의다. 국회는 상임위를 구성하라.	
'69.5.26	촌 평 (사사건건)	신장관 탄력성 있는 통일정책 천명, 성패의 관건은 관계처의 호응도	

중앙일보

날 자	종 류	내 용	취급도
'69.5.24	준 톱	통한정책에 탄력성, 9월에 여론조사 실시, 업무일원화, 3단계연구 통일위원회 (국회) 운동단체통합 자문위원 명단	3 단
'69.5.25	사 설	통일원의 과업, 변천하는 정세에 유리하게 신축성있게 다루고 자유 보장노력, 업무일원화하라 각 부처가 임기응변을 지양, 연구 및 홍보를 강화하라 분단국가도 진지하게 연구, 워싱턴 세미나 정치적 에너지 결과에 앞장서라 여론조사, 세밀한 노선 P.R 민간통일단체 통합조정 대공심리전과 병행하면서 남북간 평화공존사상에 경계, 인원 및 예산부족 너무 심하다. 유명무실하지 않게	
'69.5.25	촌 평 (역광선)	통일정책에 탄력성을, 말은 우선 그렇게 해 놓고 보는 거지	

날 자	종 류	내 용	취급도
'69.5.25	준 톱	통일정책에 신축성 9월에 국민여론조사 자문위원 위촉	6 단
'69.5.25	사 설	통일전 과정, 후의 3단계연구 분단국가실태파악 국민여론조사, 미국세미나 업무일원화, 통한원칙의 탄력성 연구자유보장, 이를 뒷받침과 방향 으로 분류 1. 서독, 자유중국에 비해 엄청난 소규모다. 예산상 뒷받침하라 2. 국회에 상임위 두라 탄력성을 원칙이 아닌 절차문제로 본다. 단순한 방식이 아닐 것이 다. 연구중의 위법성 조각이란 원칙은 당연	
'69.5.25	춘 평 (사사건건)	연구자유보장한다고 장담 글썄, 수사기관이 뭐랄지	

날 자	종 류	내 용	취 급 도
'69.5.25	준 료	통일개념에 탄력성 9월 여론조사, 연구자유보장 자문위원 명단 서독의 통독촉진협의회 같은 민간단체의 통합조정도 검토	6 단
'69.5.27	사 설	진일보하는 통일원 연구의 자유와 뒷받침에 소홀 없기를 운영구상 및 자문위원을 밝히다 진취성있는 착상이다 탄력성, 자유보장, 여론조사 세미나, 분단국가실태파악 각계협력통합 조정육성 무책임한 산발적, 기분적발언은 안된 다. 자문위는 국민에 내리기 동원으 로, 연구위에 실제기대건다. 민간인 참여로 관뿐 아니라는 증거, 예산, 인원은 충분히 뒷받침하라 통일원을 차요시, 근시안적 관료사고 방식은 애국을 가르친다.	

Korea Times

날 자	종 류	내 용
'69.5.25	Top	NUB to Guarantee Freedom of debate Research on Unity.
'69.5.27	Editorial	National Unification 한국일보와 대동소이

Korea Herald

'69.5.25	Top	Shin Stresses Need for flexible Review of Unification issue.
'69.5.28	Editorial	Unification Board Need Boost. 서울과 대동소이

미국의 성조기신문

날 자	종 류	내 용
'69.5.26		<p>Unification formular outlined "Could someday require the nation to revise the unification policy."</p> <p>Taboo, will Guarantee Max. Lilesty.</p> <p>* National assembly to set up a research comm. to sponser an international Seminar, in Washington.</p>

Korea Times

날 자	종 류	내 용
'69.5.25	Top	NUB to Guarantee Freedom of debate Research on Unity.
'69.5.27	Editorial	National Unification 한국일보와 대동소이

Korea Herald

'69.5.25	Top	Shin Stresses Need for flexible Review of Unification issue.
'69.5.28	Editorial	Unification Board Need Boost. 서울과 대동소이

미국의 성조기신문

날 자	종 류	내 용
'69.5.26		<p>Unification formular outlined</p> <p>"Could someday require the nation to revise the unification policy."</p> <p>Taboo, will Guarantee Max. Lilesty.</p> <p>* National assembly to set up a research comm. to sponser an international Seminar, in Washington.</p>

Korea Times

날 자	종 류	내 용
'69.5.25	Top	NUB to Guarantee Freedom of debate Research on Unity.
'69.5.27	Editorial	National Unification 한국일보와 대동소이

Korea Herald

'69.5.25	Top	Shin Stresses Need for flexible Review of Unification issue.
'69.5.28	Editorial	Unification Board Need Boost. 서울과 대동소이

미국의 성조기신문

날 자	종 류	내 용
'69.5.26		<p>Unification formular outlined "Could someday require the nation to revise the unification policy."</p> <p>Taboo, will Guarantee Max. Lilesty.</p> <p>* National assembly to set up a research comm. to sponser an international Seminar, in Washington.</p>

三. 오보 및 누설

여기에서 오보란 기사취재는 되었으나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고 누설은 공식적 전해가 아니고 또 통일원의 의사와 반대되는 기자 취급을 말한다.

오보로는 미국신문인 성조기에서 「국회가 연구위를 창설하여 국제 세미나도 계획한다」도 있었고,

고실에서 「C P X 훈련에 신장관이 제일 늦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나고 사표소동이라 하여 차박사가 연구비 지급 없어 사임하였다 하고 유능인재 확보지장이라고 하였다.

통일원 연구위 상설좌절하였는 바 관계부처에서 반대하였다고 났으며 외무부 직제중 국제연합과를 통일원으로 이관한다고 하였다.

누설은 전교과과정개편검토라 하여 통일원 실무자의 개인의사를 대대적 보도하였고,

반공단체 단일화라 하여 문공부 산하에 등록된 법인체와 사회단체 23개 명단도 내 놓았다. (표 8 참조)

미성조기	'69.5.26	국회가 연구위를 창설, 국제세미나를 계획한다.
중앙일보	'69.4.10	Top: 전교과과정 개편 검토, 통일원에 연구위, 반공교육강화책
서울신문	'69.4.3 '69.3.25	반공단체 일원화 정책운영 방안 마련 분단국과 교류 법인체 8개 명단 사회단체 15개 " 문공부 등록단체 고심: CPX에 신장관 제일 늦음. 잘못나감
경향신문	'69.5.3	통일연구위 상설좌절 관계부처에서 반대 외무부 억제중 UN과를 이관
상공일보	'69.3.7 '69.5.16	고심: 초조한 빛 장관 출타 많고 직원발령 늦다 고심: 사표소동 연구비 고갈 차박사 연구비 없어 사표 유능인재 확보 지장

四. 결 론

이상과 같이 통일원 개원이래 언론계에 나타난 논조를 분석하였다.

1. 분석에 대한 대책

1차적으로 개원명일전후이고 2차적으로 80여일후 공식기자회견으로 나누었다.

이것을 토대로 첫째로 당원요망에 관한 반응과 둘째로 언론이 요구하는 것을 나누어 보고 이것을 당원은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 오보 및 누설을 보고 끝으로 당원의 발전책을 생각해 보았다.

가. 당원 요망에 관한 반응

장관을 위시하여 차관 인선에 대하여 호평이었으며 책임자라는 것이다.

또 간부 인선에도 대체로 동조하였고 간혹 의아심도 나타낸 것도 있다. 담당관 인선은 난제였다고 하고 적재적소 엄선이라고 하였다.

자문위원회, 연구위원회 구상은 적극 찬성하였다.

통일업무에 관한 각성단체와 부처당무 일원화 종합 집대성 문제도 대통령논시와 같이 양호한 관심도를 나타냈고, 예산과 인원이 부족하고 너무 형식적 추상적 존재로 할것 같은 인상에는 불만을 표시 통일원자체의 생각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직원 해외파견문제는 우리 의사 이상으로 언론에 반영되었으며 정부의 해외파견억제방침에 역행하는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겠다.

나. 신문이 요구하는 것

국민은 정부에 자주적 좌표를 요구하고 있으며 타의에 의한 통일보다 정신적 독립의식을 요청함으로써 매우 건전한 사고라고 보인다.

다양화속의 일원화를 요청하여 민주제도의 장점을 힘껏 누릴 것을 당부한다고 본다. 획일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혐오하는 유익한 요구라고 해석된다.

북괴의 가장된 평화통일을 경고하여 평화를 주장하고 남침을 자행한 실례나 평화를 부르짖고 파괴활동에 광분하는 공산주범자의 수단에 역역히 익숙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정기간행물 발행을 요구하여 과거 타부시되었고 자료가 없어 의사포시도 할 수 없었던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한 요구로서 알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사려된다.

홍보, 선전을 요구하여 연구된 것이라던가 정부가 의도하는바 적의 동태, 우방의 동태, 중립국의 동태등 사태를 알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교포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제교류를 요구하여 외교상의 문제점도 채널을 통한 방법과 아울러 기타 방법으로도 통일문제를 클로즈업 시키기를 원하고 국제여론이 외국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게서도 일기를 바라는 것이다.

끝으로 직원의 신분보장을 강력히 요구 연구상의 자유, 기밀취급상의 보안, 유능인재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직제상의 안정등도 요구하고 있다.

다. 오보 및 누설에 관한 대책

오보·누설 합계가 6건으로 전체 148회 취급비율에 비하여 극소수였고 특히 통일문제는 고차적인 문제인 만큼 신중과 경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결정적인 문제에 실수를 저지를 과도 있음으로 더욱 보도는 통제,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평지풍과의 염려도 유하니 홍보담당의 사전 계획에 의해 통일원에서 승인되기 이전에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라. 홍보에 수반하는 발전계획

- 1) 시사해설 및 연구과제를 활용하여 라디오, 방송사업을 전개하여 통일문제를 계몽한다.

그리고 대북방송과 대국제방송을 통한 홍보, 선전, 심리전을 전개한다.

동시에 T.V를 통한 홍보, 선전푸로를 조성 활용토록 한다.

- 2) 연구과제 및 시사해설을 활용하여 신문지상에 게재토록 하고 잡지기사에도 게재토록 하여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을 일으킨다.

- 3)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일반인, 학자, 전문가로 하여금 통일문제에 참여토록 한다.

4) 출판사업을 전개하여 국내외에 통일에 관한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홍보선전한다.

논총을 계간으로 출판하여 통일월보를 발간 계속적 홍보를 행한다.

기타 주보, 신문 정보부레틴등도 업무의 신장과 더불어 계획한다.

5)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심적 동향과 통일에 관한 의사과악, 여론선도와 통일정책 입안에 반영토록 한다.

6) 청소년에 대한 통일문제 계몽 및 선도를 한다.

즉 대학생을 상대로한 푸로그램을 실시하고 청소년 명성단체를 활용한 활동을 전개토록 한다.

7) 언론계나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신속히 적응하고 반응하여 대책을 세운다.

본 분석은 대체로 통일원의 방향과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통일원이 즉시 반응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홍보선전을 철저히 요구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되 기타 매스콤 활용도 병행한다.

(나) 직원 신분보장을 요구하는바 별도적 보장을 행하되 직제의 개편등으로 보완시킬 수 있다. 인재확보도 주장하는바 신분보장이 해결되면 이와 부수되어 해결되는 것으로 본다.

(다) 예산부족을 언론이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예산당국 자체의 이해를 추진시켜야 한다.

8) 특별제기를 포착한 메시지나 행사를 한다.

6.25 사변기념, 제헌절, 광복절, 9.28 수복기념등을 활용한다